

GROWTH in UNISON

Annual Report
2013



동아쏘시오그룹

03

동아쏘시오그룹

- 04 인사말
- 08 그룹 개요
- 10 주요 재무성과
- 12 이사회
- 13 경영진
- 14 주주가치
- 16 인재경영
- 18 나눔경영

22

동아쏘시오홀딩스

- 24 종속회사 현황
- 25 제약 부문
- 32 운송 부문
- 33 유리 부문

- 34 연혁

38

동아ST

- 40 사업성과
- 48 종속회사 현황
- 49 연구개발

- 54 회사 및 IR 정보
- 55 2013 연차보고서 Task Force

DONG-A SOCIO GROUP

동아쏘시오그룹은 항상 변화하였습니다.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혁신하였고, 사회 전반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지난 80년간 이룬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 동아쏘시오그룹.

하나된 마음으로 글로벌 기업,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80 years of
innovation plus 1 year
of new growth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강 신 호

존경하는 고객 및 주주 여러분

지난 80년, 그리고 그 성장이 이루어낸 반석 위에 더해진 새로운 1년간 한결같이 동아쏘시오그룹을 믿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항상 더 높은 것을 위해 도전하고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과거 동아제약을 국내 부동산의 제약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 80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포화단계에 이른 국내시장을 뛰어넘어 진정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회사는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동아쏘시오홀딩스, ETC(전문의약품)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동아ST, 그리고 OTC(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동아제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을 세 개의 축으로 동아쏘시오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힘을 합친 결과, 지난해 각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쏘시오그룹의 사회공헌은 신약 개발에 있다.’는 창업정신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한 결과, 미국 Trius Therapeutics사에 License-out한 슈퍼항생제 Tedizolid의 글로벌 임상 3상이 파트너사에 의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10월 미국 FDA(식품의약품국)에 제출된 Tedizolid의 NDA(신약허가신청)가 12월 예비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글로벌 신약으로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치매 전문 연구센터인 동아치매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치매 치료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쏘시오그룹은 기존의 혁신신약연구소, 바이오텍연구소, 신약연구소, 제품개발연구소 4개와 1개의 전문 치료영역 센터를 갖추어서 R&D 역량강화 및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를 하나된 마음으로 맞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어떠한 변화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013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큰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낸 동아쏘시오그룹은 2014년, '글로벌 제약기업'을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12년 실시된 일괄약가 인하제도에 연이은 정부의 제약업계 규제 강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성장성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 및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 등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며,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R&D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둘째,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R&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습니다.

2014년은 동아쏘시오그룹이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조직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시장성 높은 혁신신약 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 초에 완공되어 가동을 앞두고 있는 DM Bio 공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에도 매진하여 보다 강한 R&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변화를 선도하며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업계 최초로 ETC와 OTC 사업을 각 전문기업으로 분리함으로써 이루어 낸 사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하고, 그룹의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80 + 1 years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국내 최고의 제약기업으로 성장한 80년,
그리고 지주사 전환을 통한 새로운 창업 이후 더해진
1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주주 여러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창업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으나 뜻 깊은 변화였습니다. 도전과 변화의 지향점이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 할 신약 개발에 있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앞으로도 동아쏘시오그룹 모든 구성원은 하나된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변화하겠습니다. 변화와 도전의 앞날에 고객 및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강 신 호**

Group at a Glance

그룹 개요

지주회사 전환으로 마련된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혁신적 의약품으로 존경받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아쏘시오그룹 모든 계열사가 하나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 기존 동아제약이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변환과 함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신규사업 투자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동아ST는 ETC(전문약품) 사업을, 동아제약은 OTC(일반약품)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존속법인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변경상장 되었으며, 인적분할 신설회사인 동아ST는 재상장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ETC 사업과 OTC 사업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 및 경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문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증대됨으로써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통한 진정한 글로벌 제약회사로의 도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쏘시오그룹 전체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에 따른 그룹의 인적 자원 및 자금 투입 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신사업 및 바이오약품 등과 같은 장기투자를 진행하며, 제약업 중심에서 의료서비스 분야 진출 및 신사업군 추가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ST

ETC, 해외사업 및 의료가기·진단에 주력하며, 기존 수출국과의 사업 및 의약품 등록, 단기와 중기 글로벌 진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연구소와 뛰어난 역량의 연구 인력 등 최적의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OTC, 건강기능식품 및 박카스® 등의 의약품들을 주 사업 분야로, '좋은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창업정신을 계승하여 국내 최고의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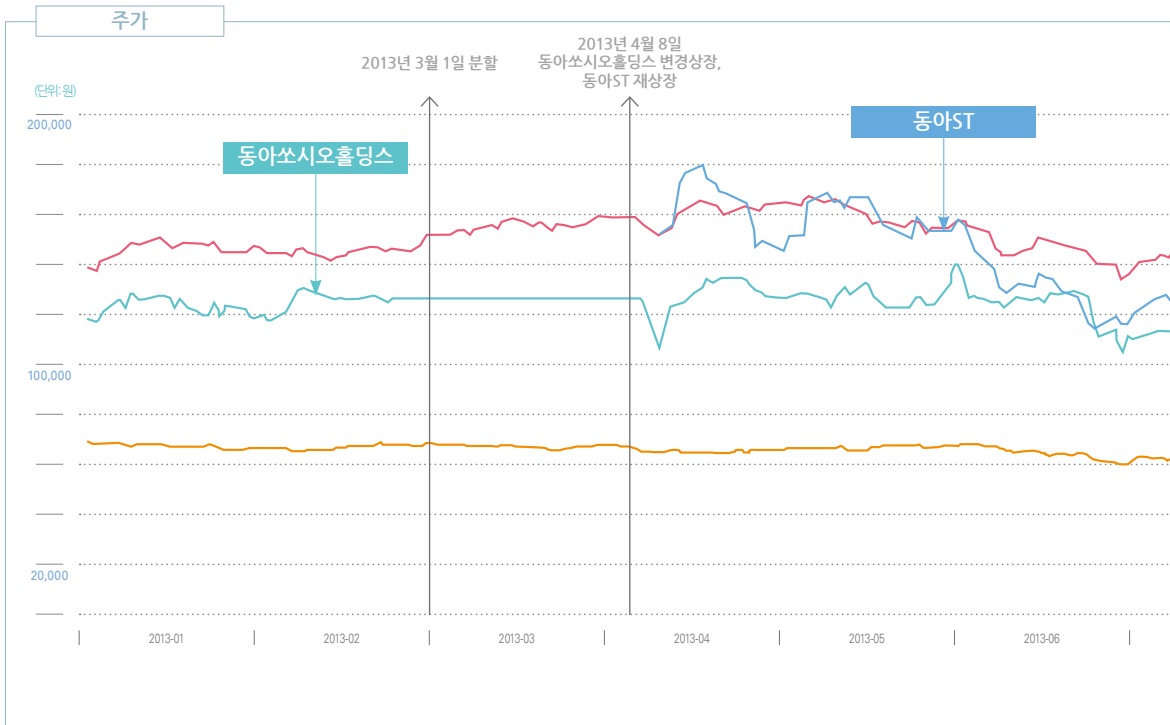
성장 전략

글로벌향 R&D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핵심은 바로 R&D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신약의 개발입니다. 선진 R&D 역량을 기반으로 동아쏘시오그룹은 스티렌®, 자이데나®, 모티리톤® 등 국내 대형 신약을 개발한 바 있으며, 슈퍼항생제 Tedizolid의 글로벌 신약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에 R&D Office를 구축하여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임상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향 R&D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정체된 국내시장에서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주사 전환으로 변화한 소통채널 및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구조 및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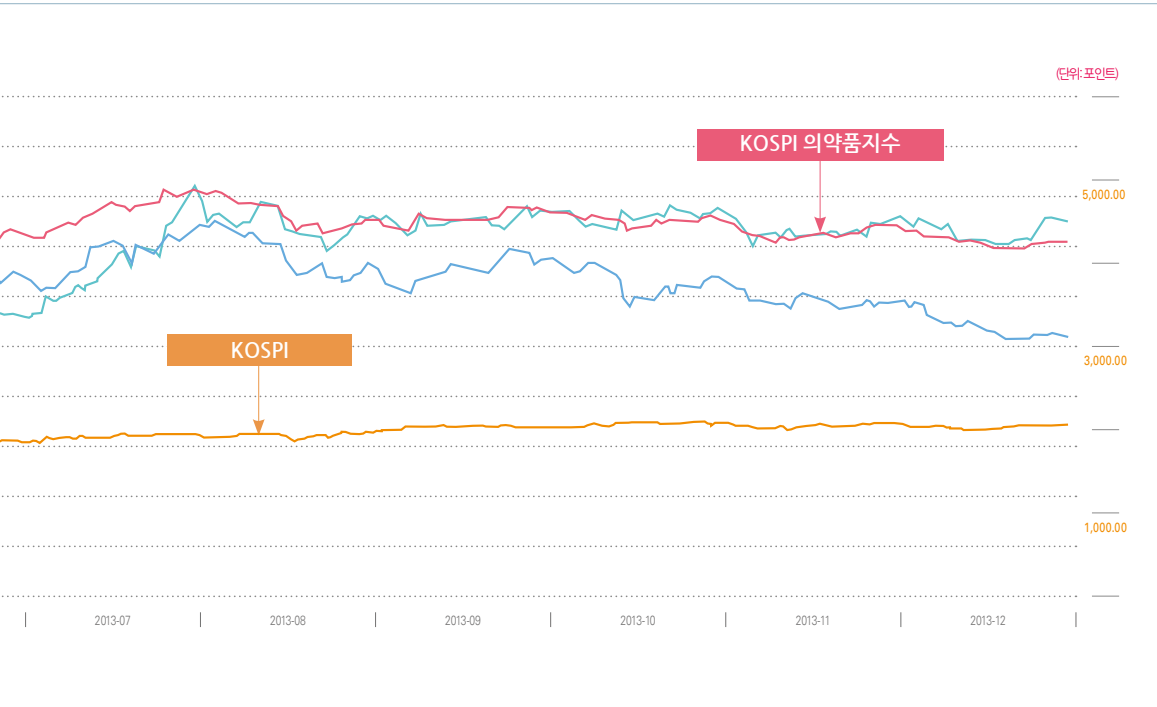


요약 재무제표

동아쏘시오홀딩스

(단위: 억원)	별도 기준	연결 기준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5,753	9,883
부채총계	2,346	4,737
자본총계	3,407	5,146
손익계산서		
매출액	735	5,709
판매비와관리비	531	1,504
영업이익	(237)	33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1)	342
당기순이익	(112)	215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아쏘시오그룹

동아ST

(단위: 억원)	별도 기준	연결 기준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9,257	9,317
부채총계	4,863	4,924
자본총계	4,394	4,394
손익계산서		
매출액	4,958	5,010
판매비와관리비	2,226	2,251
영업이익	394	39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3	169
당기순이익	(653)	(657)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동아쏘시오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전문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2013년 3월 분할 이후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이 각 사별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이익의 대변인으로서 경영활동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진취적인 업무집행을 추진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사내이사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이동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부사장

강수형

DM Bio 대표이사 사장

채흥기

동아쏘시오홀딩스 상무

기타비상무이사

김진호

이사

GSK(GlaxoSmithKline) 북아시아

총괄대표

사외이사

강경보

이사

조봉순

이사

감사

박인선

동아쏘시오홀딩스 감사

유종식

동아쏘시오홀딩스 감사

동아ST

사내이사

김원배

동아ST 대표이사 부회장

박찬일

동아ST 대표이사 사장

기타비상무이사

강정석

이사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유충식

이사

김진호

이사

GSK(GlaxoSmithKline) 북아시아

총괄대표

사외이사

김근수

이사

김대경

이사

서영제

이사

감사

장승덕

동아ST 감사

동아제약

사내이사

신동욱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

기타비상무이사

차봉진

동아ST 부사장

손미원

동아ST 상무

사외이사

전상경

이사

조봉순

이사

감사

최삼범

동아제약 감사

※ 2013년말 기준

CEOs of Affiliates

경영진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대표이사 사장



이동훈
대표이사 부사장

동아ST



김원배
대표이사 부회장



박찬일
대표이사 사장

동아제약



신동욱
대표이사 사장

동아쏘시오그룹

변화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투자자와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투자자 관계 강화

201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동아쏘시오그룹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IR(투자자관계)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시간에 공평하게 전달하였고, 진정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동아가 추진하는 장기적 목표의 신빙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나아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주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R 커뮤니케이션 채널

동아는 IR 활동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고자 사내 IR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실적발표에 앞서 사내 IR 협의회를 열어 핵심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 주요 IR 쟁점사항에 대해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투자자와 회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실적발표 후 최고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주식시장의 시각과 개선되어야 할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대외적으로는 애널리스트데이(기업설명회)에 회사 주요 임원이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IR과 PR(홍보) 간의 사전 협의 및 메시지 조율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된 정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IR 활동

애널리스트데이

동아는 연 2회 애널리스트데이를 개최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진 및 CFO(최고 재무책임자)가 회사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시장 및 투자자의 의견을 직접 전달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애널리스트와 경영진이 함께 캄보디아의 박카스® 수출 업체인 캄골드사를 방문하여 수출부문의 성장성을 확인하고 시장과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로드쇼, NDR

동아는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NDR(투자설명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매 분기마다 NDR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50회에 달하는 기업탐방을 시행하였고, 국내외에서 총 7회의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습니다.

IR 자료 공개

동아는 홈페이지에 IR 자료를 게시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분할 이후,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홈페이지로 나누어 각 사의 사업영역에 따라 간편한 홈페이지를 선보이며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국내 제약회사로서는 유일하게 2008년 이후 매해 영문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 연차보고서는 세계적인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LACP(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에서 진행한 2012 LACP Vision Awards에서 제약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동아의 성장성과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지속적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

새로운 성장을 위해 동아쏘시오그룹은 분할을 추진하였고, 주주의 신뢰에 힘입어 지주회사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동아의 선택을 지지한 주주에 대한 보답은 회사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신념에 기반하여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분할로 강화된 투명성과 전문성을 근간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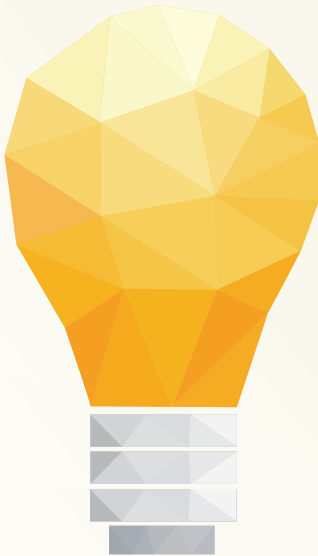
동아쏘시오그룹은 창의적인 인재, 협동하는 인재, 사회에 공헌하며 봉사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전문인력 보유 현황

동아의 임직원수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기준 주요 계열사의 임직원 수는 동아쏘시오홀딩스 321명, 동아ST 1,591명, 동아제약 589명으로 총 2,501명입니다. 그 중 약사는 총 193명으로 전체 인력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ST의 연구개발 인력은 총 337명으로 전체 인력의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8.4% 증가하였습니다.

인력개발 프로그램

2013년에는 그룹 차원의 리더십 과정, 직무-공통역량 과정 등 집합교육 40개, 원격교육 6개, 글로벌 역량강화 과정 6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매월 사이버 여학강좌를 실시하였고, 해외사업부를 위한 여학교육 228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여학능력 우수자 육성을 위해 언어, 비즈니스, 문화교류 역량에 집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쏘시오그룹 공통 인력개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2회 계열사 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동아쏘시오그룹 HRD 세미나를 개최하여 논의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

매년 2회 진행되는 대졸공채와 수시채용을 통해 동아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대졸공채를 통해 상반기 89명, 하반기 5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에 적합한 인재채용을 위해 미주, 중국 등 현지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아는 2008년부터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임직원이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등 기본적인 지원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자녀교육, 노후대책 등에 대해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임직원 자녀 55명을 대상으로 '2013 피닉스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들이 부모의 일터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자녀들은 비전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고, 임직원들은 자긍심과 애사심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터 만들기

동아는 인재들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좋은 일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975년부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분규 없이 교섭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사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이 회사에 조기에 자리잡는 것을 돕고,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게 기본 마일리지를 지급한 뒤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동료에게 칭찬 마일리지를 보내는 '칭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소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건강 상태를 매월 체크하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하는 방식으로 진심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추진방향

동아쏘시오그룹은 일찍이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립 이래로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여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제약회사로서 업의 특성과 존경받는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에 기반하여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성이나 일시적 도움이 아닌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 문화, 학술활동 부문에서도 다양한 공헌활동을 전개합니다. 나아가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석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 문화사업, 출판사업, 학술사업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나눔경영 활동

임직원 자원봉사

회사와 임직원이 서로 협력하여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지역 커뮤니티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무료급식소인 '밥퍼나눔 운동본부'를 찾아 배식봉사를 해왔으며, 신입사원들은 연수 교육시 의무적으로 지체부자유아동 시설인 '항림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합니다. 2013년에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여 생명을 위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후원활동

동아쏘시오그룹은 '사랑나눔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가정,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연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수익금 6천여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추진 사업'을 통해 매년 다문화가정의 친정나들이를 지원하고, 2008년부터 경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인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복지단체들의 의료봉사활동 의약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외구호활동

동아쏘시오그룹은 2013년 5월 라이베리아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립을 도왔고, 이러한 행보가 현지 신문에 실리며, 당 그룹 구성원에게는 자긍심을, 지역사회에는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11월에는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에 3천만원 상당의 구호의약품을 지원 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창립 60주년인 1992년에 수석장학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수석문화재단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대학생 가운데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987년 설립된 이래 수석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의 인원은 1,563명, 장학금은 2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술분야 지원

함춘의학상 | 생명에 대한 경외로 사랑을 실천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며 해당연도 연구 및 저작 부문에서 발군의 업적을 이룬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이 1969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해 왔으며, '동아의료문화상'에서 출발해 '동아의학상'을 거쳐 2010년부터는 '함춘동아의학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수석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후원합니다.

약사금탑상 |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약사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1973년 동아쏘시오그룹과 대한약사회가 제정한 상으로 매년 대한약사회 창립기념식상에서 수여하며, 수석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협찬하고 있습니다.



메세나 활동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 | 여성문학인구의 저변확대와 문예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문화의 달인 10월에 펼쳐지는 여성문화행사입니다. 2013년 31회를 맞이한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은 학생을 제외한 국내의 23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원에 입상한 작품은 문화예술자에 게재되고 문단에 정식 등단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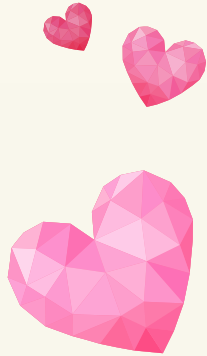
박카스®와 함께 하는 대학생 국토 대장정 | 2013년 16회를 맞은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코드로서 1998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총 144명의 참가자 선발에 매년 1만 여명의 젊은이들이 지원해 높은 참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20박21일 동안 600km가 넘는 길을 걸으며 완주를 통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것을 취지로 행사에 참여합니다. 국토대장정의 원조로 불리는 이 행사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하나의 문화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 남녀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동안 진행되며, 생태 모니터링 활동, 숲속의 작은 음악회 등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박카스®배 전국시도학생 골프대회 |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개최한 대회로 나날이 발전하여 지금은 국내 골프 꿈나무들이 꼭 참가하고 싶은 대회 중의 하나이면서 우리나라 청소년 골퍼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박카스®배 천원전-박카스®배 한중천원전 | 1983년 동아제약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 바둑의 발전과 바둑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박카스®배 프로기전'이라는 타이틀로 첫 출범했습니다. 기업이 후원하는 최초의 프로기전으로 일천만 바둑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 왔으며, 1996년 '박카스®배 천원전'이라는 타이틀로 재출범하여 2013년 1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또한 '박카스®배 한중 천원전'을 열어 각국의 천원이 경합을 벌였으며, 바둑이 인기스포츠로 자리잡은 중국에서 박카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그린®배 프로여류 국수전 | 여성 바둑인구의 저변 확대와 가그린®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동아제약이 협찬하고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기전으로서 2014년 20회를 맞이하는 전통있는 대회입니다.



03

동아쏘시오그룹

22

동아쏘시오홀딩스

24 종속회사 현황

25 제약 부문

32 운송 부문

33 유리 부문

34 연혁

38

동아ST

54 회사 및 IR 정보

55 2013 연차보고서 Task 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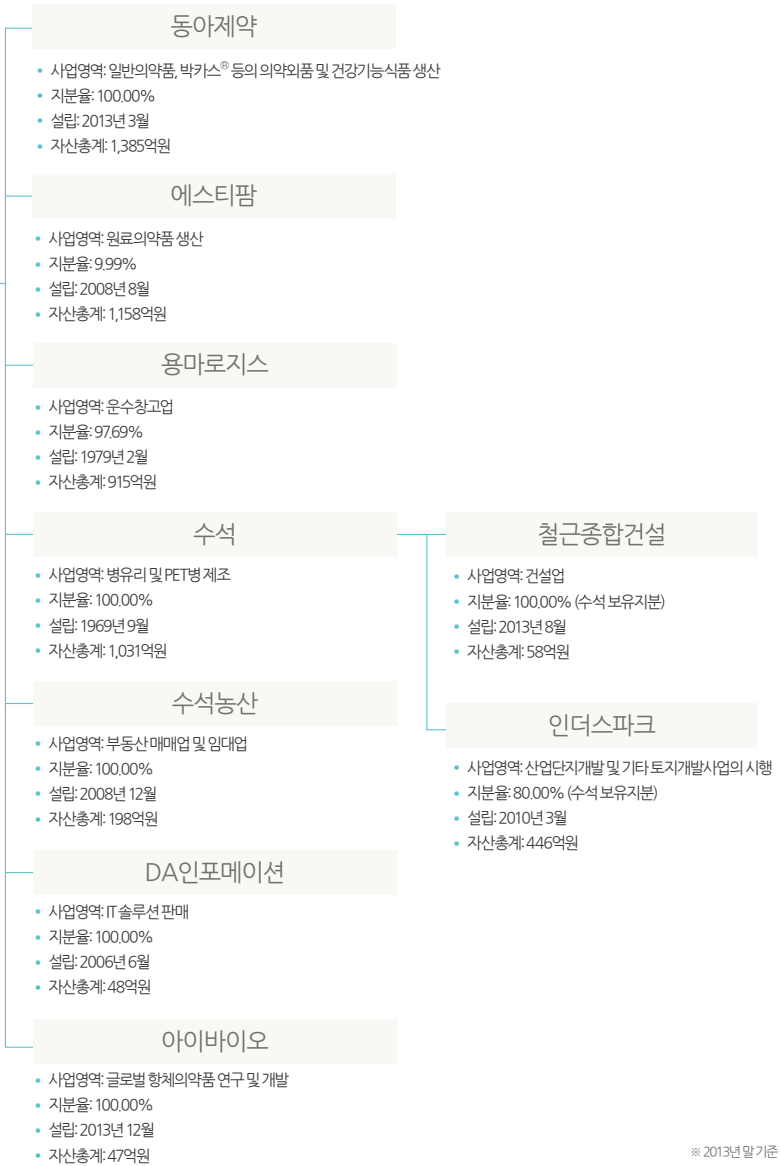
DONG-A SOCIO HOLDING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어 이루는 전체는 한사람
한사람의 재량과 능력을 더한 합보다 큼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3년 구성원 모두의 힘을 합하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하나된 힘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GROWTH IN UNISON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10개사이며 당사 및 종속회사는 4개의 전략적인 영업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 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다르므로 크게는 제약, 운송, 유리 및 기타(IT Solution 판매, 농산물 생산 및 판매, 부동산개발사업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체적인 조직구조를 설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구상합니다.

주요 종속기업



※ 2013년 말 기준

Pharmaceuticals

제약 부문



1932년 12월

9,883 억원

5,709 억원

336 억원

※ 2013년 말 연결계무제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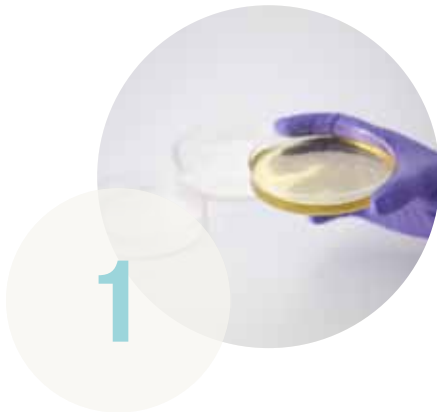
동아쏘시오홀딩스

2013년 동아쏘시오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ETC(전문의약품)과 OTC(일반의약품)이 분리된 사업구조를 구축함에 따라 강화된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을 기반으로 동아쏘시오그룹은 치료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던 제약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예방과 관리 영역인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부문으로 진출함으로써 토탈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이러한 목표 수행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룹의 조직구조를 설계합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연구본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의 연구본부가 지주회사 부분과 사업회사 부분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획관리실, 바이오텍연구소, 그리고 혁신신약연구소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연구본부 산하로 편입되었고, 신약연구소와 제품개발연구소는 동아ST 연구본부 산하로 편입되었으며, 동아쏘시오홀딩스 연구본부는 혁신신약과 바이오신약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동아ST 연구본부는 임상시험과 제품출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he First’를 모토로 하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연구본부는 해당분야 최초(First-in-class)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진정한 의미의 ‘The First’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신약 연구체제를 구축하였고, 미국에 글로벌 R&D Lab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벤처, 제약회사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신규 약물 타겟 발굴, 검증, 개발의 원스톱 연구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THE FIRST

해당분야 최초(First-in-class)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연구본부 모토



120명

연구개발 인력

※ 2013년 말 기준

321 억원

연구개발 투자액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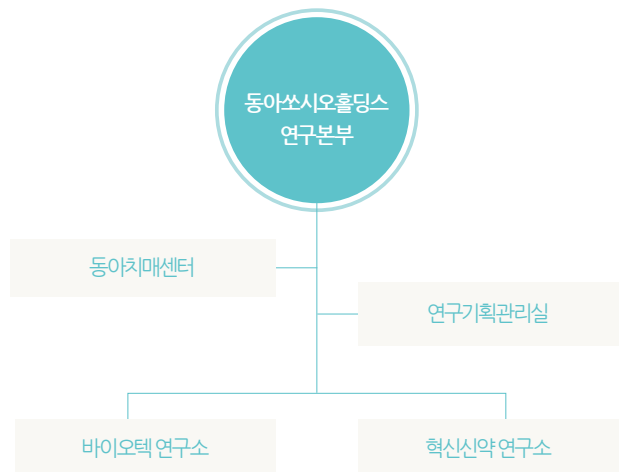
연구개발 투자액 매출대비 비중

※ 2013년 1월~12월간 동아쏘시오홀딩스
연결 종속회사 계약부문 기준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시밀러 부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Meiji Seika Pharma사와 지난 2011년 유방암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시작으로, 2012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2013년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성장호르몬,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불임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축적된 당사만의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기술과 경험에 기반하여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생산 및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품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양사의 포괄적 영업망 구축과 함께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2017년 한일 공동 발매를 목표로 선진국 허가규정에 맞추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암, 치매, 통증 분야의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데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국내 제약사 최초로 치매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허브 역할을 할 동아치매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20명의 연구인력으로 출발하여 향후 해외 인재 30% 이상을 포함한 50명의 연구인력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외부 기관과 Open Innovation을 시행하여 전세계 주요 치매 연구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국가 지정 치매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치매 토탈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개방적 혁신의 일환으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3년 4월, 미국 Salk Institute 출자의 JCB 공동생물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골형성 촉진 단백질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글로벌 바이오 신약 개발에도전하고 있습니다.





DM Bio

2011년 9월, 동아쏘시오홀딩스(당시 동아제약)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바이오시밀러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일본 Meiji Seika Pharma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DM Bio는 양사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설중인 cGMP(선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바이오 공장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신규 법인입니다. 양사는 공동개발 제품의 생산시설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2012년 1월 DMBS사업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2013년말 DM Bio의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DM Bio 신공장

양사는 2012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에 부지면적 144,430.3m², 연면적 21,750.39m² 규모의 글로벌 수준의 cGMP 바이오 공장을 기공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준공하였고, 2014년 운영을 앞두고 있는 신공장 건설 및 설비 구축은 양사의 공동투자자로 이루어졌으며, 투자액 규모는 약 1천억원입니다. 신공장은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제품을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건설되어 투자대비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세계시장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DM Bio 신공장은 7,500리터 규모의 항체 바이오의약품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3개로 독립된 각 2,500리터 생산라인을 통해 다수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세포배양과 정제 공정을 거쳐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되어 있고, 향후 무균충전 및 포장 설비를 추가 구축하여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DM Bio는 동아쏘시오홀딩스와 Meiji Seika Pharma사가 글로벌 바이오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일차적인 목표는 cGMP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사 공동개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진출을 통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해나갈 것입니다.



설립일

2013년 3월

자산총계

1,385 억원

매출액

2,897 억원

영업이익

373 억원

※ 3월부터 12월간 동아제약별도 재무제표 기준



동아제약

지회회사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 동아제약의 OTC(일반의약품) 사업이 별도의 법인인 동아제약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개편된 동아제약은 동아쏘시오홀딩스의 100% 자회사이며, 국내에서 OTC 및 박카스® 등을 주 사업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망

동아제약은 OTC, 건강식품, 박카스® 등의 의약품을 약국 및 일반유통 채널에 공급합니다. 뛰어난 조직력과 현장관리 능력을 갖춘 130여 명의 영업사원이 전국 20,000여 약국에 70여 종의 OTC를 공급하며, 의약품 및 건강식품을 전국의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에 공급합니다. 약국으로만 판매가 가능한 OTC에 대해서는 OTC 전담 마케터들과 OTC 전문 지점을 구축하여 전국 약국에 직접 공급하며, 90여 곳의 도매상을 통해서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제약은 동아쏘시오그룹이 글로벌 제약회사로 성장하는 데 있어 캐시 카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박카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내 유통과 철저한 재고 및 현금흐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카스사업부는 140여 명의 영업사원과 7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한 루트 세일즈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편의점과 할인점 채널의 박카스®-F와 약국 채널의 박카스®-D를 철저히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캠페인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박카스®가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데에는 차별화된 마케팅이 일조하였습니다. 특히 박카스® 광고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국민건강을 컨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많은 공감과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2013년 4월 한국광고주협회가 주최하는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전파부문 대상을, 11월에는 한국광고협회에서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광고대상' 영상 TV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박카스®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박카스® 발매 50주년을 기념하여 의약전문지 데일리팜이 주최한 '대한민국에서 약사로 산다는 것' 공모전을 후원하여 '제1회 대한민국 제약산업 홍보광고대상'에서 홍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 성장동력

동아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을 신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6월,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재 발굴, 유효성 평가, 산업화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연구회는 향후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 및 질병 예방 개념을 가진 Medical Food 개발에 참여하여 동아제약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주요 제품



박카스®

자양강장제

1963년 발매된 이래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었고, 2013년 국내 시장에서 1,79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판피린큐®

소염, 해열, 진통제

1956년 발매된 종합감기치료제로서 동아제약의 대표 OTC 제품이며, 감기, 몸살, 두통은 물론 기침과 가래에도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액제 감기약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13년 253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가그린®

구강청정제

99.9% 살균력으로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작은 세균까지 제거가 가능하여 충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성인용, 어린이용, 희석액, 파우치, 1회용 스틱형 등 다양한 제품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3년 23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 숙취해소음료

숙취 증상을 완화시키는 숙취해소음료로서 알코올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013년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모닝케어® 플러스를 출시하였고, 2013년 매출액은 102억원입니다.



베나치오®

소화불량치료제

2009년 발매된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이며, 일반적인 소화불량 증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관련된 흉통, 가슴 답답함, 신트림 및 구토 등의 증상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식물성 소화제로 위에 부담이 줄었고, 1주일 복용으로 소화불량증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건 크림톤®

염모제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대표적인 염모제입니다. 2013년 모발보호성분과 보습성분을 추가 배합하여 염색에 따른 모발 손상을 보호하고, 암모니아 냄새를 줄여 염색 시 거부감을 최소화한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설립일
2008년 8월

자산총계
1,158 억원

매출액
843 억원

영업이익
109 억원

※ 2013년 말 기준



에스티팜

2010년 동아씨오그룹에 편입된 에스티팜은 API(원료의약품) 전문기업입니다. 2011년 당시의 B형간염치료제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업계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에스티팜은 에이즈치료제인 지도부딘 합성기술을 개발한 이래 뉴클레오시드 항바이러스제 약물의 원료 및 중간체 개발에 주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일류 제약사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Gilead사 등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들과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독점적 원료 공급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FDA(식품의약품)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 WHO(세계보건기구) 등의 유관기관들로 cGMP (선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국제적인 생산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판매전략에 있어서 당사는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임상 초기 단계부터 제품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상 단계에서 공정 최적화 및 Scale-up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상 개발을 거쳐 신약이 출시되면 제1공급사로서 상업물량을 공급하는 전략을 통해 고객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대량공급체제를 구축합니다.

당사는 또한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사업으로 RNAi(RNA 간섭) 치료제 분야에도 진출하였습니다. RNAi 분야는 2006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수여된바 있는 새로운 신약 개발분야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영역입니다. 당사는 남들보다 먼저 사업기반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API 및 의약품 중간체 사업을 통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년 대비 13.4% 증가한 8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84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꾸준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미국 FDA 승인을 기반으로 CMO(의약품 생산대행 전문기업)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에스티팜은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고객사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Scale-up 및 공정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31.1% 증가한 67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7.9%에 해당합니다.

Logistics

운송 부문



설립일

1979년 2월

자산총계

915 억원

매출액

1,246 억원

영업이익

55 억원

※ 2013년말기준



용마로지스

용마로지스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TPL(3자물류) 전문기업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물류의 선두주자를 지향합니다.

주요 성과

용마로지스는 취급하기 까다롭고 높은 관리수준을 요하는 특화물류 서비스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전국화물, 택배, 자동차운송 앞선주선업, 복합운송 주선업, 운수창고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내수경기 성장세 둔화로 인한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개발과 신규고객 유치 등을 통해 전년 대비 6.4% 증가한 1,24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주력사업인 운송 부문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동시에, TPL과 국제 부문이 각각 전년 대비 14.1%, 24.6%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증가와 함께 운영 프로세스 개선으로 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며 양적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에 기반한 질적 성장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래 계획

2014년 용마로지스는 매출확대와 동시에 내실을 다지고 이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 부문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전개할 것입니다. 당사의 주요사업 부문이나 성숙기에 진입하여 성장이 제한된 운송 및 택배 부문에 대해서는 신규서비스 도입 및 신규산업군 진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할 것이며,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보관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육성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ottle Glass

유리 부문



설립일
1969년 9월

자산총계
1,031 억원

매출액
685 억원

영업이익
56 억원

※ 2013년 말 기준



수석

수석은 유리병, Cap, PET병 등의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종합 포장재 기업입니다. 동아제약의 박카스® 유리병과 뚜껑 등이 주력 제품이며, 40여년의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 나아가 친환경 포장재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고객사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주요 성과

1978년 동아쏘시오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수석은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등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는 물론, 국내 대표적인 식품업체인 풀무원과 음료제조업체인 제이원 등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은 유리 사업부, Cap 사업부, 그리고 PET병과 플라스틱 Cap을 생산하는 PP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판매 또한 유리병, Cap, PET으로 구분하여 국내외 제조업체에 직접 판매합니다. 병유리의 경우, 150톤/일의 생산능력을, Cap은 8억5천만개/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5만개/일의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PET 사업의 경우, 2011년 PET병 시장에 진출한 이후, 국내 생수시장의 수요증가로 인해 10~13%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석은 거래처의 주문에 따른 발주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판매 후에도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거래량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거래처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여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계획

2014년 수석은 병유리와 Cap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PET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수 PET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생수 이외의 분야로도 PET 사업을 확대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종합포장용기 회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Milestones

연혁

동아의 서막

1932~1958

80 YEARS OF
INNOVATION
+ 1 YEAR OF GROWTH
IN UNISON =

19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에서
강중희 상점으로 의약품 및 위생재료
도매업 창업



1947

제약업으로 본격화

1949

동아제약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19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현대식 공장과 사무실 신축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 생산

제약 경영의 근대화 추진

1959~1974

1961

종합 자양강장제 박카스® 정제로 첫 생산

1963

종합 자양강장제 박카스®-D 드링크제로 재발매

성장 기반 구축

1975~1992

197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중앙연구소 설립

1979

세계 3번째로 항생제 탈암피실린® 개발

1981

베타락탐계 항생물질 제조법으로 발명대상 수상

한 마음 되어 위기 극복

1993~1999

1993

1세대 바이오의약품 인성장 호르몬 그로트로핀® 개발

1994

1세대 바이오의약품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동아인터페론-알파™ 발매
세계 최초로 AIDS 및 C형 간염 동시진단시약 개발

AIDS 진단시약 AIDS DIA®
KT(국산신기술 인정서) 수상



1964

박카스®-D 드링크제 시장 1위 부상

1967

국내 제약업계 매출액 1위 부상

1970

IPO(주식공개)

1988

국내 최초 1세대 AIDS 진단시약 AIDS DIA® 발매

업계 최초 K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연구소 상갈에 준공

1991

AIDS 진단시약 AIDS DIA®로 IR52 장영실상 수상

1995

박카스® 국내 단일의약품 중 최초로 매출 1,000억원 달성

1997

결핵치료제 크로세린® 국내 최초 개발

1999

1세대 바이오의약품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류코스팀® 및 신성빈혈치료제 에포론® 발매

R&D 중심의 신약 개발사로 탈바꿈
2000~2007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을 향한 도전
2008~2012

2001

주주중시경영 우수기업상 수상

2002

제1호 자가개발 신약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 발매

2005

제2호 자가개발 신약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발매

2009

자회사 동아팜텍을 통하여 미국 및
캐나다 시장(Warner Chilcott사)에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기술 수출

2010

영국 GSK(GlaxoSmithKline)사와
포괄적 사업 협약 체결



2006

1세대 바이오의약품 불임치료제
고나도핀® 발매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간문맥
고혈압 적응증으로 독일 Dr. Falk
Pharma GmbH사에 유럽 시장에
대한 기술 수출

2007

슈퍼항생제 DA-7218(Tedizolid)
미국 Trius Therapeutics사에 한국
제외 전세계 시장에 대한 기술 수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로
IR52 장영실상 수상

2011

제3호 자가개발 신약 천연물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모티리톤® 발매

일본 Meiji Seika Pharma사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포괄적
업무 계약 체결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전립선비대증 포함 비뇨기 적응증으로
일본 시장(Meiji Seika Pharma사)에
기술 수출

동아쏘시오홀딩스

03

지주사 전환으로 동아쏘시오홀딩스 (준속 법인), 동아제약(물적분할 법인), 동아ST(인적분할 법인)로 3사 분할

04

미국 JCB연구소와 AB-204(골 형성 촉진 단백질) 공동연구개발 계약

10

송도 DM Bio 공장 생산장비 제막식

국내 최초 치매연구센터 설립

2012

자사개발 당뇨병치료제 DA-1229(Evogliptin) 중국 시장(Luye Pharma Group사)에 기술 수출

개량신약 항암제 모노탁셀® 중국 시장(Gloria Pharmaceuticals사)에 기술 수출



FOCUSED GROWTH

동아ST

04

DA-9801(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미국 FDA(식품의약국) 임상2상 IND(신약임상시험계획서) 승인

10

슈퍼항생제 DA-7218(Tedizolid) 미국 FDA에 NDA(신약허가신청) 제출

12

발기부전치료제 데일리제형 자이데나® 75mg 발매

2012

일본 Meiji Seika Pharma사와 한국 송도 부지에 DM Bio 공장 기공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모티리톤® IR52 장영실상 수상

동아제약 창립 80주년

자사개발 당뇨병치료제 DA-1229(Evogliptin) 인도 및 네팔 시장 (Alkem Laboratories사)에 기술 수출

03

동아쏘시오그룹

22

동아쏘시오홀딩스

38

동아ST

40 사업성과

48 종속회사 현황

49 연구개발

54 회사 및 IR 정보

55 2013 연차보고서 Task Force

DONG-A ST

2013년은 동아ST가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내 어떤 제약기업보다도 앞서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의 행보를 시작하였고,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ETC 전문기업으로
새로이 출범한 기념비적인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4년은 전문화된 경쟁력을 통해
동아ST가 더욱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FOCUSED
GROWTH

DONG-A ST

BUSINESS REVIEW



한층 전문화된 사업구조와 국내 최고수준의 생산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겠습니다.



2013 Performance

전문화된 경쟁력에 기반한 성장

2013년 동아ST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전년 대비 약 12.7% 감소한 3,8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소 부진한 실적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정책 강화, 치열한 경쟁 등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영업환경 및 급변하는 시장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3년 3월, 동아쏘시오그룹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고, 동아ST가 ETC(전문의약품)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됨에 따라 향후 매출 회복이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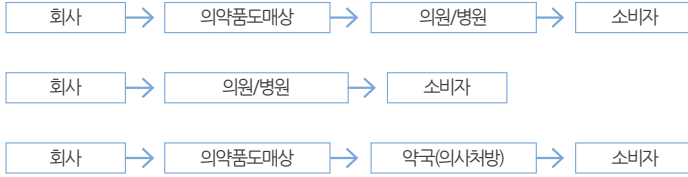
당사는 국내 제약사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ETC 영업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1천여개 병원과 1만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90여개의 ETC와 다양한 의로기기 및 진단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여명의 ETC 영업사원들과 70여명의 의로기기·진단 영업사원들이 전국 11개 지점과 4개 사업소를 통해 최상의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의 제품이 적시적소에 처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

동아ST는 주공장이 천안공장을 비롯하여 반월공장과 달성공장의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천안공장에서는 사이데나[®], 스테렌[®], 모티리톤[®] 등 당사 자기개발신약 및 여타 캡슐제, 정제, 주사제, 연고제와 액제를 생산합니다. API(원료의약품) 합성공장인 반월공장에서는 함양제를 생산하고, 계열사인 ST팜과 함께 Cycloserine, Terizidone, Taurine 등의 API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달성공장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담당하며 에프론[®], 그로트로핀[®], 류코스팀[®], 고나도핀[®] 등이 주요 생산제품입니다.

당사 공장의 생산능력은 주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Capacity)을 기준으로 평균 가동시간 1일 8시간, 1개월 21일, 1년 12개월 가동을 가정했을 때 연간 약 4,544억원에 달하는 제품생산이 가능합니다. 생산본부 전체 평균 가동률은 가동시간 기준 109.3%입니다.

전문약품 판매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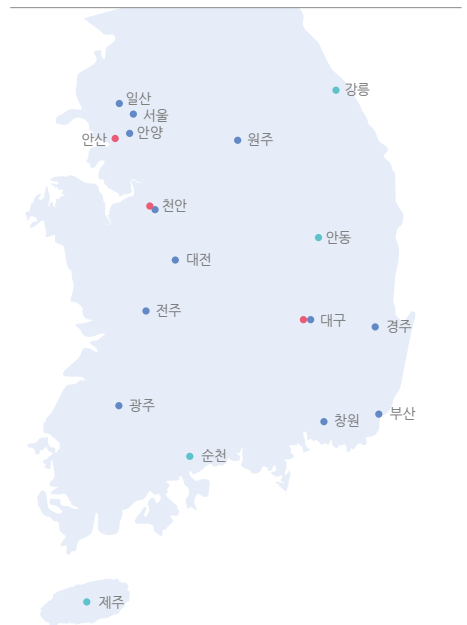


Future Plan

2014년 동아ST는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여 회사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서비스 기대치 상승 및 이에 부응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 등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시장을 선점하고자 당사는 ETC 부문에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제약시장에 부합하면서 타 제약사와는 차별화되는 근거 중심의 학술활동 등을 통해 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티렌[®], 자이데나[®], 모티리톤[®]과 같은 자가개발신약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최근에 발매된 도입신약 및 제네릭 신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진단 부문에서 신제품 도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등 매출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내네트워크

- | | |
|-----------|------------|
| 지점 | 사업소 |
| 서울지점 | 제주사업소 |
| 안양지점 | 안동사업소 |
| 일산지점 | 순천사업소 |
| 부산지점 | 강릉사업소 |
| 대구지점 | |
| 창원지점 | 공장 |
| 경주지점 | 천안공장 |
| 대전지점 | 반월공장 |
| 천안지점 | 달성공장 |
| 광주지점 | |
| 전주지점 | |
| 원주지점 | |





스티렌®정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은 애엽에서 추출한 eupatilin과 jaceosidin을 주성분으로 하는 위염치료제로서 당사가 2002년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신약입니다. 발매 이후 지난 10년간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아 2005년부터 국내 방어인자증강제 시장을 선도하며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2013년 말 현재 국내 방어인자증강제 시장에서 29.4%의 시장점유율로 1위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2013년 매출액은 633억원에 달합니다.



자이데나®정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정은 2005년 동아가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자체 개발한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입니다. 러시아, 터키,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2012년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완료함에 따라 미국시장 진출 또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합성신약 최초로 발매년도에 매출 100억원을 올린데 이어 2013년 말 기준, 누적 판매액 1,123억원을 돌파하였고, 12.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모티리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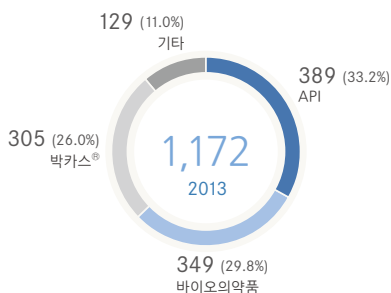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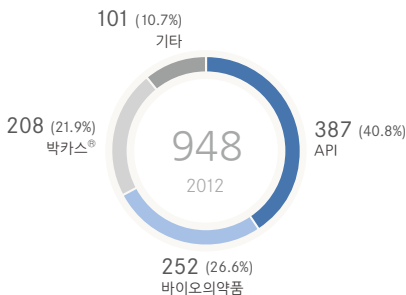
기능성소화불량치료제

모티리톤®정은 자사 독자개발 3호 신약으로 2011년 발매되었습니다. 현호색, 견우자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천연물 신약이며, 5-HT4 항진, D2 길항, 5-HT1 항진 등 트리플 액션을 하는 유일한 기능성소화불량 치료제입니다. 발매 1년 만에 국내 기능성소화불량시장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9.3%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1위로 성장하였고, 14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혁신적 신약 개발과 전문화된 사업역량,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으로
글로벌 제약시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제품별 해외매출
(단위: 억원)



2013 Performance

글로벌 비전 수립

2013년 10월, 동아ST가 글로벌 비전 전략을 공표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해외매출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비전의 핵심은 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를 글로벌화의 두 축으로 삼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및 전략에 따라 동아ST는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 구축, 임상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R&D 역량을 제고하고, 조직 및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성장 시현

2013년 제약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및 신흥국가들의 성장을 둔화 등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각국가의 높아지는 진입 장벽, 전 세계적인 약가인하 및 제품가격 인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ST는 2012년 대비 23.6% 성장한 1,172억원의 해외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브라질, 캄보디아 등에서의 매출 성장과 더불어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등의 동남아시아, 탄자니아와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신규매출을 창출한 결과입니다.

지속적인 해외매출 성장을 이루고 세계 각국의 등록서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ST는 인도 등의 글로벌 현지시장에서 해외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 및 유럽시장을 목표로 항암제, 혈압약 및 항증진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자이데나®, 당뇨병치료제 등의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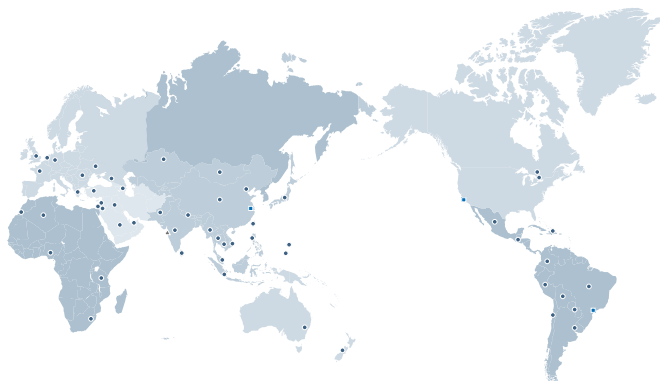
보다 큰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동아ST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 시장을 비롯하여 아시아 및 중남미의 신흥 시장까지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무소를 거점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브라질 해외법인인 Dong-A Participacoes를 설립해 중남미 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동아ST는 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약 50여 개 국가에 스티렌[®], 자이데나[®] 등의 자체개발 신약과 더불어 그로트로핀[®], 에프론[®], 류코스팀[®] 등의 바이오의약품, Cycloserine, Terizidone, Atorvastatin 등의 API(원료의약품) 및 박카스[®], 크로세린[®] 등의 완제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Future Plan

2014년 동아ST는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과 영업 확대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수출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중점 시장의 지점망 확대 및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신약을 개발하여 글로벌 매출을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국내 시장을 넘어 연 평균 4~5%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의약품 시장을 공략하는 동아ST의 글로벌 전략은 의미있는 성과를 맺어 2007년 194억원에 불과하던 해외수출 실적이 2013년 1,17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아ST는 중장기적으로 2018년까지 전체 매출의 30% 이상으로 수출비중을 확대함과 동시에 전사 영업이익의 50%를 수출을 통해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글로벌 회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법인 | 미국, 브라질, 중국

연락사무소 | 인도

수출 진출국가

북미 | 미국, 캐나다

중남미 | 과테말라, 도미니카,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오세아니아 | 괌, 뉴질랜드, 사이판, 호주

유럽 | 그리스, 독일, 영국, 루마니아, 네덜란드, 프랑스, 터키

아시아 | 대만, 네팔, 말레이시아, 몽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얀마, 스리랑카

중동 |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레바논, 이스라엘, 이라크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남아공, 탄자니아, 알제리* (2015년), 모로코* (2016년)

러시아/CIS |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진출 예정

글로벌 성공스토리



크로세린® 캡슐

항결핵제

크로세린은 2세대 결핵치료제로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리팜피신(Rifampicin) 같은 1차 결핵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MDR-TB(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동아ST는 2011년 12월 성공적으로 WHO(세계보건기구) 실사를 마친 이후 기존 WHO에 원제를 제공하던 업체들에게 원료로 제공하던 항결핵제를 WHO에 직접 완제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 WHO로부터 PQ(사전품질인증)을 받아 국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고, 2014년 WHO 결핵치료제 국제입찰 결과에 따라 지난해 보다 184% 이상 성장한 1,250만 달러 상당의 크로세린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인 8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WHO를 통해 치료받는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환자 수가 전년 대비 7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인도, 중국과 필리핀, 아프리카 11개 국가에 대한 제품 등록 및 패키지 개선,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공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또 다른 형태의 항결핵제 제품을 WHO에 등록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카스®

에너지드링크

대한민국 대표 피로회복제로 자리잡은 박카스가 세계인들의 피로회복제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카스는 1963년에 발매된 타우린 함유 자양강장제입니다. 회사 분할 이후 국내에서는 동아제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해외에는 동아ST를 통해 수출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13개국으로 수출되며 각 시장 별로 특화된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캄보디아 시장을 박카스의 동남아 시장 전초기지로 개척하겠다는 계획 아래 현지화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 2013년 캄보디아 시장에서 266억원의 매출, 에너지 드링크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동아ST는 캄보디아에서 거둔 박카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미얀마와 베트남에서 발매를 시작하였으며, 필리핀에서는 현지 웹사이트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아프리카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히 진행하여 2013년 10월,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탄자니아에 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카스는 해외 시장에서 지난해 대비 46.7% 성장한 3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성장을 하고 있고, 주변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주시장 공략을 위해 탄산을 함유한 박카스캔 제품을 출시해 동부 및 LA지역 한인마켓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마트 입점 등을 통해 중국 한족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이데나®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는 동아가 2005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발기부전치료제로서 국내 시장에서 이룬 안정적 성장을 기반으로 2008년 러시아에 진출하였으며,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해외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1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18개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동아ST는 지속적인 자이데나해외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 8월, 인도 KOL(핵심 오피니언리더)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기존 판매 국가 및 판매 예정 국가 총 8개국의 파트너사를 초청하여 '2013 자이데나 글로벌 파트너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자이데나 개발경위 및 임상자료, 국내 마케팅 현황과 각국의 현지 마케팅 전략 및 판매계획 등을 공유한 이번 세미나는 자이데나 매출 신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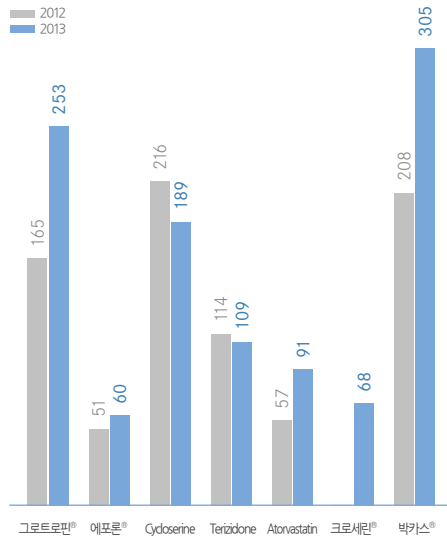
Atorvastatin

고지혈증치료제 원료의약품

Atorvastatin은 동아ST의 제네릭 고지혈증치료제인 리피논의 API(원료의약품)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수출을 시작하였고, 2013년 전년 대비 60% 이상 신장한 91억원의 매출을 일본에서 달성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높은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며 일본시장에 진출,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번 사례를 통해 동아ST의 API와 나아가 완제의약품의 선진시장 진출 가능성이 보다 가시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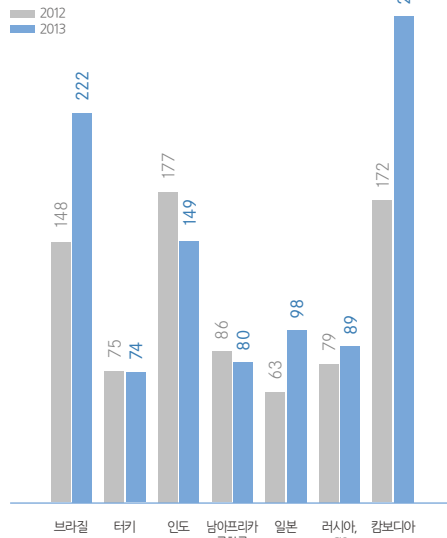
제품별 해외매출

(단위: 억원)



지역별 해외매출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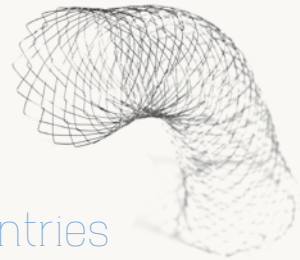
동아ST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은 엠아이텍과 Dong-A Participacoes입니다. 엠아이텍은 2013년 4월 동아ST에 인수된 의료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이며, Dong-A Participacoes는 향후 당사의 라틴아메리카 시장을 총괄하는 본부 역할을 수행할 브라질 법인으로서 2013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엠아이텍

설립 | 1991년 1월 11일
 사업분야 | 비혈관용스텐트 제조 및 판매
 매출액 | 99억원
 임직원수 | 62명
 위치 | 경기도 평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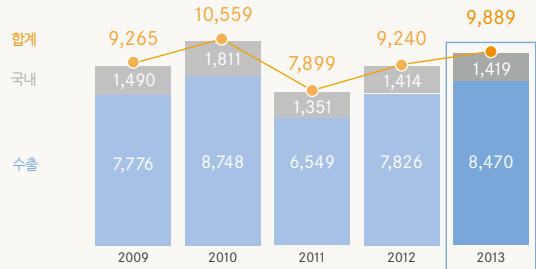
스텐트는 인체내 혈관 및 비혈관의 내강이 암이나 종양 등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협착되었을 경우, 내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되는 원통형의 디바이스입니다. 하나로 스텐트는 엠아이텍이 개발한 스텐트 제품 브랜드로서 미국 FDA(식품의약국) 및 일본 MHLW(후생노동성)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50+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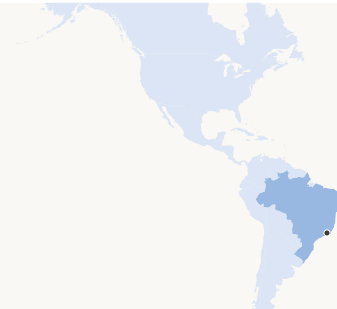
엠아이텍은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전세계 50여개국에 소화기내과용 스텐트를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판매가 수출액의 60%를 차지합니다.

엠아이텍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DONG-A PARTICIPAC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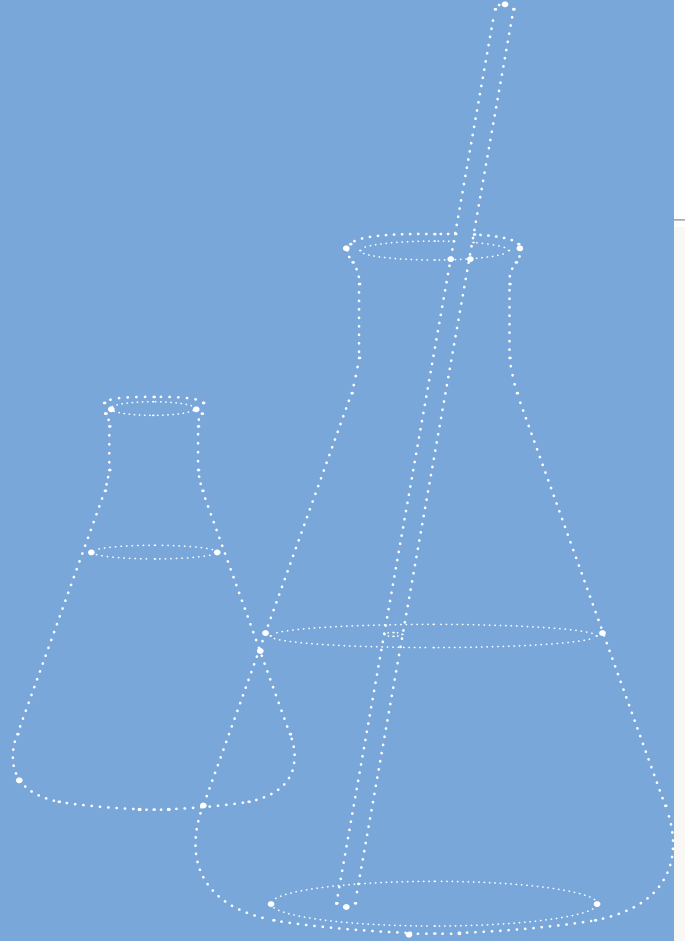
설립 | 2013년 4월 1일
 사업분야 | 브라질 현지투자 및 신사업 개발
 위치 | 브라질 상파울루



※ 2013년말 기준

DONG-A ST

R&D
REVIEW



앞선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혁신을 현실화하여 R&D 중심의 세계적 제약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THE BEST

해당분야 최고(Best-in-class)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는 동아ST 연구본부 모토

연구본부는 동아ST가 R&D 중심의 세계적 제약사로 도약하는 원동력입니다. 1977년 연구소 설립 이후 지속적인 투자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사 최고의 경쟁력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2년 당사 자체개발 1호 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 발매에 이어, 2005년 국내 최초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 2011년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 모티리톤® 등을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국내 제약시장에서 신약 개발의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에 아웃라이센싱한 자이데나®와 슈퍼항생제 Tedizolid의 미국 임상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신약, 천연물신약, 개량신약 분야에서 글로벌 신약이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3 Performance

한층 전문화된 R&D 구조

201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의 연구본부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ST 산하의 연구본부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이중 동아ST는 신약 연구소와 제품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신약 개발 경험을 살려 보다 전문화된 영역에서 신약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동아 ST는 새롭게 재편된 R&D 구조를 기반으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The Best'라는 모토를 중심으로 기존의 '해당분야 최고(Best-in-class)' 의약품 개발을 포함해 단기적인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이 주요 분야가 될 것입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동아ST는 글로벌 R&D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 벤처기업, 대학 등과 활발한 R&D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기술이전은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217명

연구개발 인력

13.6%

전체인력 중 연구개발 인력 비중

※ 2013년말 기준

538억원

연구개발 투자액

10.8%

매출 중 연구개발 투자액 비중

※ 2013년 3월~12월간
동아ST 별도재무제표 기준

있습니다. 관련 실적으로 2007년 미국 Trius Therapeutics사에 Tedizolid를 아웃라이센싱하였고, 2013년 미국에서의 임상 3상이 완료되어 FDA(식품의약품)에 NDA(신약허가신청)가 제출되었습니다. 당뇨병성신경병증 천연물 신약인 DA-9801의 경우, 당사가 단독으로 미국 FDA 임상 2상 IND(신약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 의약품의 글로벌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신장과 장기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당사는 IMD(개량신약)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2년 항암 개량신약인 모노탁셀[®]이 중국으로 기술 수출되었고, 유럽등록을 위한 허가 신청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절염,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약효와 복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복합제 개량신약에 대한 전임상 및 제제연구를 완료하여 IND를 신청하였습니다.

분할된 동아제약의 연구를 대행하는 OTC(일반의약품) 부문에서는 가그린[®], 모닝케어[®], 베나치오[®] 등과 같은 기존 브랜드의 육성을 위해 임상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박카스[®], 판피린 큐[®], 써큐란[®] 그리고 해리치[®] 제품연구를 통해 제품군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남성불임증 치료제 분야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OTC 신약 연구과제를 개시하였고, 차별화된 신소제에 기반하여 상처치료제 및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Future Plan

동아ST 연구본부는 합성신약 및 천연물신약을 의약품 특성에 맞춰 지역별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에 따라 소화기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 대사내분비계 질환을 중심으로 해당분야 최고 후보물질을 도출한 뒤 국내 개발과 동시에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에서 기술 수출을 통하여 현지 동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동아ST는 R&D에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R&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국내외 전문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 육성할 것입니다. 당사의 R&D 인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까지 400명의 R&D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동아ST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코드명 (브랜드명)	적응증	특성	연구개발 현황	라이선싱 여부
합성의약품				
DA-8159 (자이테나 [®])	발기부전	PDE(Phosphodiesterase)-5 억제제	발매 (한국) 임상3상 완료 (미국)	일부지역 가능
	간문맥고혈압	PDE(Phosphodiesterase)-5 억제제	임상2상 (유럽)	일부지역 가능
DA-8159	전립선비대증	PDE(Phosphodiesterase)-5 억제제	임상2상 (미국, 일본)	일부지역 가능
	폐동맥고혈압	PDE(Phosphodiesterase)-5 억제제	임상2상 (한국)	일부지역 가능
DA-7218	피부 감염 (ABSSSI)	Oxazolidinone 계열 항생제	허가 신청 (미국, 유럽)	
	폐렴 (HABP/VABP)	Oxazolidinone 계열 항생제	임상3상 (글로벌)	
DA-6034	위염	Flavone 유도체	임상3상 완료 (한국)	가능
	안구건조증		임상2상 완료 (한국)	가능
DA-1229	2형 당뇨병	DPP(Dipeptidyl Peptidase)-4 억제제	임상3상 (한국)	일부지역 가능
DA-6886	과민성대장증후군 (변비형)	5-HT (Hydroxytryptamine)4 효능제	임상1상 완료 (한국)	가능
DA-8010	과민성 방광	M ₃ receptor antagonist	전임상 (한국)	가능
천연물의약품				
DA-9701 (모티리톤 [®])	기능성소화불량	식물 추출물	발매 (한국)	가능
DA-9801	당뇨병성신경병증	식물 추출물	임상2상 완료 (한국) 임상2상 (미국)	가능
바이오의약품				
DA-3801 (고나도핀 [®])	보조생식술시 난포과자극	재조합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발매 (한국)	일부지역 가능
	무배란증		임상3상 완료 (한국)	
DA-3031	호중구감소증	PEG-G-CSF (Pegylated-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허가 신청 (한국)	가능
DA-3803	불임증	재조합 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임상3상 완료 (한국)	가능
DA-3051	다발성경화증	Interferon-β	임상3상 계획 (브라질)	가능
DA-3030	당뇨병성신경병증	G-CSF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임상2상 완료 (한국)	가능
DMB-3111	유방암	Trastuzumab 바이오시밀러	임상1상 (일본)	가능 (일본 제외)
DA-3808	A형 혈우병	Recombinant Factor VIII 바이오시밀러	전임상 완료 (한국)	가능
DA-3880	빈혈	Glyco-engineered Darbepoetin α 바이오시밀러	전임상 완료 (한국)	일부 지역 가능
DMB-3853	류마티스관절염 외	Etanercept 바이오시밀러	전임상 (미국)	가능 (일본 제외)
DMB-3113	류마티스관절염 외	Adalimumab 바이오시밀러	전임상 (영국)	가능 (일본 제외)
DA-3204	척추유합술	AB204	전임상 (한국)	
DA-3131	노인성안구황반변성	New anti-VEGF mAb	전임상 (한국)	가능

※ 동아쏘시오홀딩스 파이프라인 포함

주요 파이프라인 항목

[Udenafil; 자이데나®]

Udenafil은 동아ST가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자체 개발한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입니다. 2009년 미국 Warner Chilcott사 (현재 Actavis사)와 미국, 캐나다 지역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Warner Chilcott사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미국 FDA(식품의약품)에 NDA (신약신청허가)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Udenafil은 발기부전 외에 전립선비대증, 간문맥고혈압, 폐동맥고혈압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Warner Chilcott사와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에 대한 북미 지역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2011년에는 Meiji Seika Pharma사와 비뇨기계 적응증으로 일본 지역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간문맥고혈압 적응증은 2006년 Dr. Falk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Dr. Falk사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동맥고혈압 적응증으로는 동아ST가 한국에서 임상 2b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edizolid]

Tedizolid는 MRSA(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과 같은 내성균을 포함한 그람 양성균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감염을 치료하는 2세대 oxazolidinone 계열 항생제로, 경구 또는 정맥주사로 투여됩니다. 2007년 미국 Trius사와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Trius사가 진행한 급성세균성피부부조작감염(ABSSSI) 적응증에 대한 임상 1상부터 3상 시험 결과, Tedizolid는 현재 시장에 발매된 유일한 동일 계열 제품 대비 짧은 투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1일 1회 용법으로 약물 투여가 용이하여 환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경쟁품 대비 우수한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Trius사는 Cubist사에 합병되었으며, 지난 10월 Tedizolid에 대한 NDA가 미국 FDA에 제출되었습니다. Tedizolid는 미국 FDA로부터 ABSSSI와 HAPB/VABP(원내 폐렴/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적응증에 대해 신속 허가 및 우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QIDP(Qualified Infectious Disease Product)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FDA의 Tedizolid NDA 검토 완료 목표일은 2014년 6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Cubist사는 2014년 1분기에 유럽 EMA(유럽의약품국)에 MMA(판매허가신청)를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상반기내 캐나다에도 판매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HAPB/VABP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Evogliptin]

Evogliptin은 DPP-4(Dipeptidyl Peptidase-4) 저해제 계열의 당뇨 치료제로서 DPP-4에 대한 선택성이 우수한 약물입니다. 임상 1상에서는 Evogliptin 5mg 단회 투여시 DPP-4 작용이 80% 이상 저해되고, 5mg 1일 1회 반복 투여시에는 DPP-4 억제작용이 24시간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임상 2상에서는 Evogliptin 5mg이 위약 대비 유의하게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습니다. Evogliptin은 뇨로 배설되는 비율이 낮아 신장에 환자의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만 유도 동물 실험에서 지방간 및 이상지질혈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2012년 동아는 중국 Luye Pharma Group사, 인도 Alekm Laboratories사와 각각 중국, 인도 및 네팔 지역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Luye Pharma Group사와 Alekm Laboratories사는 각각 로컬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임상 2상 시험이 2012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임상 3상 시험이 2013년 5월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DA-3031]

DA-3031은 동아ST가 1999년 발매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류코스팀®의 지속형 제품입니다. 류코스팀®에 PEG를 접합시켜 반감기를 연장시킨 DA-3031은 한 사이클에 한번 투여가 가능하여 기존 제품의 하루 한번 투여해야 되는 불편함을 없애고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킨 제품입니다. DA-3031의 동물 실험 결과 경쟁제품과 동등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였고, 성공적으로 임상 1상, 2상 3상 시험을 완료하여 2013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4년 국내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A-3880]

DA-3880은 만성신부전 환자 및 항암 화학요법 환자들의 빈혈 치료제로서, 지속형 적혈구 조절자극제인 Darbepoetin-alpha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입니다. 기존 Erythropoietin 제제가 보통 주3회 투약하는데 비해 DA-3880은 적응증에 따라 주1회 투약이 가능하여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DA-3880 오리지널 제품의 당화과정과정이 복잡하여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어려운 반면, DA-3880은 높은 유사성이 입증되어 2014년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 동아ST는 일본 SKK(Sanwa Kagaku Kenkyusho)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DA-3880 완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회사정보

본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Phone: 02-920-8114
Fax: 02-926-9400

연구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5번길 21
Phone: 031-280-1400

공장

천안공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1로 200-23
Phone: 041-621-1500

반월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71
Phone: 031-494-2980~3

달성공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493
Phone: 053-610-0500

이천공장

경기도 이천시 경흥대로 2946번길 61
Phone: 031-644-2800

DM Bio 공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식기반로 45
Phone: 070-8636-1252

IR 정보

본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Phone: 02-920-8187
Fax: 02-925-8244
ir@donga.co.kr

설립일

동아쏘시오홀딩스

1932년 12월

동아ST

2013년 3월

동아제약

2013년 3월

상장

동아쏘시오홀딩스

한국거래소 A000640

동아ST

한국거래소 A170900

정기 주주총회

2014년 3월 21일

홈페이지

동아쏘시오홀딩스

국문 <http://www.donga.co.kr>

영문 <http://en.donga.co.kr>

동아ST

국문 <http://www.donga-st.com>

영문 <http://en.donga-st.com>

동아제약

국문 <http://www.dapharm.com>

영문 <http://en.dapharm.com>

2013 연차보고서 Task Force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팀
강옥구 과장

연구기획팀
김태형 책임연구원

인사기획팀
권기혁 과장, 최재훈 주임

재무팀
최용훈 차장

총무팀
문상훈 과장, 윤나라 주임

커뮤니케이션2팀
김경태 차장, 성기엽 과장, 조현진 과장,
이용미 대리

회계팀
강동완 과장

동아ST

생산관리팀
김윤중 주임

학술의약전략팀
배동열 과장, 가진웅 대리

해외개발팀
장은주 부장, 조소라 과장

해외영업전략팀
류정하 부장, 김근성 과장

동아제약

마케팅팀
김경미 과장

박카스영업전략팀
권승일 주임

엠아이텍

경영관리팀
백상환 차장

DMBio

운영관리팀
손진법 차장, 김유미 대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본 브로슈어는
친환경 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



동아쏘시오그룹